

하나님의 창조세계 (God's Creation World)

이 작품 스스로가 **하나님의 창조세계**를 증언하기 때문에 작가의 설명이 필요없다. 굳이 사족을 붙인다면 작품에서 구현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원래 하나이며, 하나로 통한다는 것이다. 이 작품은 **세 개의 세계(Triptych)** 인 **우주계(cosmic)**, **가상계(virtual)**, **초월계(transcendental)**로 구성되어 있고, 각각은 **8개의 모듈(module)**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합이 **24개**이다. **우주계**는 '우주는 하나다'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의 중력장으로 구성된 구멍으로 표현하였다. **가상계**는 '가상과 실체는 하나다'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실체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하나의 환상(illusion)임을 표현하였다. **초월계**는 '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고,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세계는 하나다'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의 큰 원으로 하나의 장(one total field)을 표현하였다. 이 작품은 극한의 차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흰색으로만 표현하였다. 하나의 색 장(color field)을 통하여 우리는 흰 공간 속으로 들어가, 일상적인 의식작용을 중지하고,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는 극한의 체험 공간 속으로 들어간다.

장대현 작가

<http://davidchangnyc.com>

artdavidchang@live.com